

중국 요녕성 조선족 도시단독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of Korean-Chinese single family housing at the urban area in Liaoning Province, China

김 종 영*
Kim, Jong-Young

Abstract

Recently, the space organization of Korean-Chinese houses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erritories. The vast land of China, coming from different hometown in Korean peninsula, and the different procedure of settlement seem to make the different space organization of Chinese-Korean single family housing at the urban area in Liaoning Prov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Chinese space organization of single family housing at the urban area in Liaoning Province are as follows ;

i) Three types of space organization are central kitchen type, central corridors type, and central living room type.

ii) The central kitchen type is mainly in old urban housing, after 1980's, the central corridor type appears in single family housing, and central living room type appears 1990's.

iii) It seems that the main reason to change the space organization are fuel, system of heating, influence of Korea housing. Especially, Korean-Chinese like central living room type that is suitable for sit down living style. This central living room type supposes to be used as popular space organization in urban housing.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재 중국 조선족은 동북3성 즉, 요녕성, 립성, 흑룡강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의 주거를 연구하려 할 때 그 지역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대륙이 워낙 광활한데다 조선족들의 한반도에서의 출신지역, 정착과정 등이 서로 다르고 생활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앞서 중국 동북3성의 주

택들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에서 요녕성의 주거와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주거가 공간구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족들의 주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택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현재 요녕성에는 230,000여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로서는 심양시, 안산시, 철령시, 무순시, 단동시 등에 많이 살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족의 도시 주거·주거지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족의 집중분포된 요녕성의 심양시 및 그 주변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 단독주택 공간구성의 특성

* 정희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95-0600-04-02-3)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범위의 도시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실제적인 도시지역 즉, 성시(城市)가 다른데 본 연구는 성시에서도 도심지를 약간 벗어난 주변지역의 단독주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도심지는 집합주택과 각종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 남아있는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노후되어서 점차 재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주된 초점은 첫째, 조선족 도시주택 공간의 구성형태와 그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각 유형의 특징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셋째 그러한 유형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주택 공간구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지역 조선족 주거에 대한 국내 자료를 거의 구할 수 없어서 연구는 주로 현지의 자료 및 실태조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우선 기초자료를 통하여 이 지역 조선족의 개황을 살펴보고 이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려 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선족이 집중 분포된 5개구역 즉, 심양시 2개구역, 안산시, 단동시, 무순시 각각 1개구역을 중심으로 총63호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 스캐취와 주생활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지역 주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아울러 이들 구역간에는 공간구성이나 생활양식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심양시 동릉구, 우흥구와 안산시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 대상은 총26호였는데 이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공간구성의 특징과 건축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서 건축시기를 대상선정의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시기구분은 주거의 현대화, 도시화과정 이전 시기(1950년대까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구분하였다²⁾. 조사는 실측조사와 관찰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의 평면,

배치등에 대한 도면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고 공간이용실태 등 생활상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는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의 형태 및 유형을 분류하고 이어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공간구성의 변화과정과 그 요인 및 장래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해 실시한 조사의 내용, 대상, 기간은 표1과 같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명	내용	대상	기간
기초자료 조사	· 요녕성 개요 · 조선족 이주 역사, 경로 · 조선족의 현황, 생활		
예비조사	<개략적인 도면 작성> · 공간구성 <관찰 및 면담 조사> · 주생활	심양시 동릉구, 우흥구: 20호 안산시: 15호 단동시: 12호 무순시: 16호 (총 63호)	1996 7.28-8.10
본조사	<실측조사> · 주택평면 <관찰, 면담> · 정착과정 · 주생활-취침, 단란, 식사, 접객등 ·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	심양시 동릉구: 10호 심양시 우흥구: 8호 안산시: 8호 (총 26호)	1997 7.4-7. 12

Ⅱ. 요녕성 조선족의 도시 주거 개황

요녕성(遼寧省, 랴오닝성)은 면적 약 15만km, 인구 4,000여만명의 성이다. 거주 민족으로는 한족(漢族)이 가장 많고 그외 만족, 몽고족, 조선족 등이 살고 있다. 조선족의 이주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이다. 이 지역이 과거 고구려, 발해 영토의

일부였고 그 후에도 원, 명, 청나라시대에 많은 조선족들이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그들중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일부는 동화하였으며 극히 일부만 조선족의 풍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본계(本溪) 지역의 박씨(朴氏)촌이 그 한 예이다. 조선족의 실질적인 이주는 19세기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5개구역은 거의 대부분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시대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다. 또한 이들의 출신지역은 예비조사 결과 75%정도가 평안도 출신이었다. 한편 조선족들은 대체로 일정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우리의 읍(邑)의 성격과 유사한 조선족 진(鎭), 면(面)과 유사한 조선족 자치향(自治鄉)을 이룬 곳이 있는데 그림1은 자치향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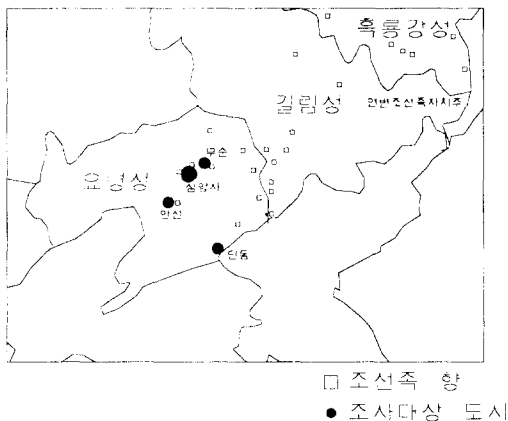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도시 및 조선족향의 분포

이 중 심양시는 요녕성의 경제, 교통, 문화 중심도시로서 시구(市區)인구만 약 382만명의 대도시이다. 현재 약 83,000여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이는 요녕성 전체 조선족인구의 약 37%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시 중심부의 서탑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외곽지의 동릉구, 우흥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인근의 쏘가툰지역 역시 조선족이 많은 지역이다. 심양시 중심부가 집합주택이

거대한 군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동릉구, 우흥구 등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 많다. 한편 심양 남서쪽의 안산시에는 현재 약 10,000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압록강변의 단둥시에는 15,000여명, 무순시에는 49,000여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도시내에서도 대개 일정 구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III. 조선족 도시단독주택의 공간구성 실태

여기서는 공간구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각 실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이어 공간구성의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본조사된 주택은 심양시의 동릉구 10호, 우흥구 8호, 안산시 8호로 총 26호였다. 이들의 평균가족수는 3.5인이었고 가족구성은 노부모를 모신 세대가 6세대, 부부와 자녀가족이 11세대, 부부 또는 혼자사는 경우가 9호였다.

표 2는 본조사 대상인 26호의 면적, 위치, 건립연도, 평면특징 및 개략적인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1. 조사대상 주택의 개요

26개 평면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연도: 건축연도는 1970년대까지가 9호(P1-P9), 1980년대 9호(P10-P18), 1990년대 8호(P19-P26)이다. 여기서 P1, P3는 1950년대, P2, P7, P9는 1960년대에 건축한 것이다.

② 건축면적: 1970년대까지는 평균 59.7㎡(42-77㎡), 1980년대는 65.8㎡(40-85㎡)이며 1990년대는 65.3㎡(55-78㎡)이다. 1950년대는 42-50㎡였다.

③ 건축구조: P1, P3는 홑집에 초가지붕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벽돌조 기와지붕이다. 26개 모두 단층주택이다.

표 2. 조사대상 단독주택의 개요

위치: D-심양시 동릉구, W-심양시 우흥구, A-안산시

기호	면적(m ²)	위치	건축 연대	평면형태와 특징		
				특 징	평 면 형 태	
P1	42	A	1970 년대 까지	정지가 평면의 중심에 오는 전형적인 형태		
P2	72	D				
P3	50	D				
P4	64	A		정지개조-현관분리	기본적으로 정지가 평면의 중심인 형	
P5	77	W				
P6	47	A				
P7	50	W				
P8	71	A				
P9	64	A				
P10	44	D	1980 년대	정지 개조- 방추가		
P11	80	W		구들+라디에터난방		
P12	85	W		띠강구조, 실내욕실		
P13	65	D		전형적인 복도형		
P14	63	A		복도형으로 구들난방		
P15	84	A		실내욕실		
P16	66	W		우측방들-라디에터		
P17	40	W		주방이 코너에 위치		
P18	57	A		주방줄이고 욕실추가		
P19	74	D	1990 년대	내부개조-욕실추가		
P20	63	D		일반적인 복도형평면		
P21	58	D				
P22	78	D		주방개조, 띠강구조		
P23	67	W		일반적인 복도형		
P24	55	D		저실이 평면의 중심에 오고 생활의 중심이 되는 형		
P25	76	W				
P26	60	D				

④ 평면형태: 조사된 26개 모두 직사각형 평면이고 평면은 방, 정지(부엌), 거실, 창고, 욕실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본채외에 부속채를 갖고 있는데 부속채에는 창고, 셋방 등을 넣고 있으며 11개 주택(P10, P11, P13, P14, P16-P18, P20-P24)에서 변소를 부속채에 두고 있다. 실내에 욕실을 갖춘 것은 4호(P12, P15, P18, P19)이며, 변기까지 갖춘 것이 2호(P25, P26)이다.

⑤ 개축: P5, P10, P19는 주택의 내부를 일부 개조한 경우인데 P5는 정지 일부를 현관으로 만들었고 P10은 정지 안쪽에 작은 방을 만든 것이다. P19는 정지에 현관을 만들고 창고에 욕실을 설치한 경우이다.

2. 각 실의 개요.

조사된 주택에서 나타나는 각 실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

방은 2-3개가 일반적이며 호칭은 “방” 또는 “아들방” 등으로 부르고 있다. 방의 구조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칸(炕)구조 방

칸은 한족식 온돌구조인데 조선족주택에서도 그대로 사용해 왔다. 조사대상 주택 26호 중에서 P24-P26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1개이상의 칸방을 갖고 있다. 이것은 방의 일부에만 구들을 놓은 것으로 높이 약 60-70cm, 폭 180cm정도로서 크기는 대개 방의 1/3내지 1/2정도이다.

(2) 띠칸구조 방

이것은 기존의 칸에 그보다 약간 낮은 또하나의 칸을 추가한 형태로서 띠칸이라고 한다. 원래 칸은 방 일부분에만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뿐만아니라 칸부분과 칸이 없는 부분의 단차가 커서 장롱등 가구를 놓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칸보다 10-20cm정도 낮은 띠칸을 추가하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게 된다. 띠칸부분은 부엌아궁이에서 불을 넣지 않고 별도의 아궁이를 설치하여 난방을 한다. 조사된 주택중 2개

주택(P12, P22)에서 볼 수 있었다.

(3) 침대방

칸이 설치되지 않은 방으로서 원래 있던 칸을 제거한 경우와 신축시 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난방은 개별 온수보일러식 라디에터로 한다. 조사된 26호 중에서 16호가 침대방을 가지고 있었다.

(4) 통방

온수바닥난방을 한 한국식의 방으로서 취침, 대화, 식사등을 방바닥에서 한다. 최근에 개조하거나 신축한 3개 주택에서 나타난다.(P24, P25, P26)

이상에서 방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예비조사나 본 조사에서 한국의 재래식 온돌방구조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정지(부엌,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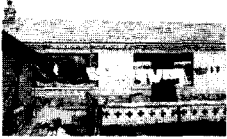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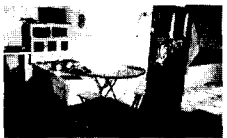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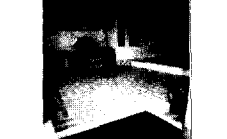

부엌은 정지, 주방이라고도 부른다. 대체로 오래된 주택의 재래식 부엌은 정지, 개조하거나 신축하여 비교적 현대식으로 한 경우는 부엌, 또는 주방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을 혼용하기로 한다. 대체로 정지는 넓고 크며 주택의 중앙에 있다. 이 경우 정지의 기능은 출입, 취사, 식사, 세면, 세탁 등 다기능으로서 주택의 중심 역할을 한다. 개조된 부엌이나 주방은 취사, 식사기능 정도로 단순화되어 주택의 한쪽 코너에 위치하며 면적도 축소되어 있다. 26호 중에서 재래식 정지가 있는 주택이 11호(P1-P11), 나머지는 부엌, 주방이 있다.

3) 거실

현지에서는 커팅(客廳)이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된 거실과는 달리 독립된 실을 가리킨다. 오래된 주택에서는 커팅이 없었는데 후에 방 하나를 개조하여 칸을 없애고 거실로 만든 경우가 많다. 신축건물에서는 거의 대부분 커팅을 설치한다. 최근에는 소위 LDK형의 오픈된 거실도 나타나고 있는데 3개 주택(P24-P26)에서 이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각 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표3은 그 실예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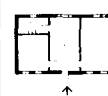


표 3. 주택 각 실의 실태

	NO.	사 진	현 황 및 특 성
외관	①		심양시 우흥구의 주택으로서 1980년대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붉은 벽돌조에 기와를 이었다. 건물중앙부의 현관에 들어서면 곧바로 복도가 있고 좌측에 거실, 우측에 칸으로 된 방이 있다.
정지 (부엌)	②		1960년대에 지은 주택의 정지(부엌)로서 건물중앙부에 있다. 과거 빨감으로 베풀을 사용했으므로 넓고 커야 했다. 솔이 정지 좌우 양편에 있으며 거기서 좌,우측방 구들에 난방을 한다. 건물출입은 정지로 하고 방도 정지에서 들어간다.
	③		연료가 석탄, 개스, 전기로 바뀌면서 정지를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 세탁, 세면등 다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지가 중앙에 있으며 양측 방 중 하나는 거실로 개조하고 그 쪽 아궁이와 부뚜막은 없애버렸다.
	④		1990년대 주택의 주방이다. 취사와 난방을 분리시켜 난방은 보일러로 바닥난방을 하고 있다. 취사연료는 전기와 개스를 사용한다. 위치는 평면의 우측 안쪽 코너부분에 있고 거실에서 들어가며 식사실을 겸하고 있다.
방	⑤		안산시의 오래된 주택의 방이다. 칸이 방 안 남북 양측에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한족주택의 방 형태와 유사하다. 정지에서 진입하며 대체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나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⑥		요녕성 도시주택의 전형적인 방 형태로서 취침, 식사, 접객공간으로 사용된다. 한쪽들과 달리 조선족은 칸과 바닥면 전체를 비닐장판으로 깔고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난방은 칸부분만 구들을 놓아 따뜻하게 한다.
	⑦		1980년대에 라디에터가 보급되면서부터 방하나는 칸이 없어지고 침대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대를 없애고 커팅(객실)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집전체의 난방은 구들과 라디에터를 겸용하고 있다.
	⑧		칸에 약간 낮고 넓은 또하나의 칸(띠칸이라 함)을 붙인 형이다. 부엌아궁이에서 연결되는 구들은 칸부분에만 놓여져 있고 띠칸에는 별도로 작은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칸이 좁아 좁더 넓게 쓰고 난방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복도	⑨		복도형 주택의 중앙복도이다. 바깥에서 문을 열면 곧바로 복도로 연결되고 거기서 각 실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정지는 복도 어느 한쪽에 위치하게 되며 방은 정지에 붙은 칸방과 복도 반대편 라디에터가 설치된 침대방 또는 커팅이 있다.

3. 공간구성의 형태 및 유형

주택의 공간구성형태는 앞서 언급한 방의 구조나 종류, 부엌, 커팅, 화장실의 유무 및 형태등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고려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각 실의 배치와 연결, 건물진입방식, 생활면에서의 주된 기능, 난방방식등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의 형태를 분류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표4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표 4. 공간구성의 유형

	정지중심형	복도형	거실중심형
구들식 (방 전체)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4	
구들+라 디에터	P10, P11	P12, P13, P15, P16, P17, P18, P19, P20, P21, P22, P23	
바닥온수 난방			P24, P25, P26
평면에			

① 정지중심형 : 정지로 출입하고 구들(강)로 난방을 하며 각 실의 연결, 생활의 중심이 정지인 형.

② 복도형 : 복도로 출입, 각 실 연결을 하고, 구들과 라디에터로 난방을 하여 평면배치가 앞서

①과 확연히 구분되는 형.

③ 거실중심형 : 거실이 실 배치나 생활의 중심이 되는 형.

이제부터 이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공간구성

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IV. 유형별 공간구성의 특성

여기서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지중심형의 특징

이 형은 중앙에 정지가 있고 양측에 방이 있는 매우 단순한 형이다. 이것은 이 지역 초창기 단독주택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오래된 주택에 일부 남아 있다. 주택의 출입, 각 실의 연결은 정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정지까지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고 방에 들어갈 때에는 벗는다.

(그러나 한족들의 경우는 방에서까지 신을 신는다). 정지 규모가 다른 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인데 이는 과거 땀감으로 부피가 큰 벗짚이나 농업부산물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지의 기능 역시 매우 복잡적이어서 이곳에서 취사와 식사(식사는 강에서 하기도 한다), 난방은 물론 출입, 겨울철의 세면, 세탁등이 이루어진다. 즉, 정지가 주거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공간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은 거의 대부분 강형식인데 일부에서는 한쪽방의 강을 뜯어내고 허드렛칸이나 침대를 사용하는 방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의 예로서 그림2는 심양시 동릉구 이○○씨 닥의 평면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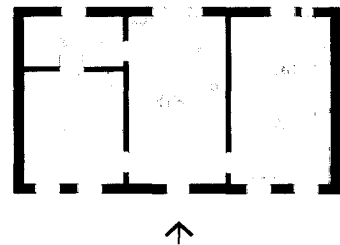


그림 2. 정지중심형의 예

이 집에는 현재 부부가 살고 있으며 가장은 시의 공무원이다. 연면적은 72㎡, 적벽돌 기와집으

로서 1960년대에 지은 것이다. 정지로 출입을 하며 정지 우측에는 강구조의 방이 있고 좌측에는 침대방과 창고가 있다. 침대방은 원래 강이 있었는데 제거하였다. 현재 강방 하나만 쓰고 침대방은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오면 사용한다. 과거 연료로 뱃짚을 사용할 때는 정지가 그 정도로 커야했지만 현재 난방은 석탄으로, 취사는 전기나 개스연료로 하기 때문에 용도에 비해 너무 크다고 한다. 따라서 자금이 허락되면 정지를 줄이고 실을 하나 더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2. 복도형의 특징

이 형은 중앙에 복도가 있어 각 실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이 가능한 것은 연료와 난방방식의 변화로 부엌의 크기, 위치등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지중심형과는 달리 부엌은 복도 어느 한쪽 뒷편에 있고 기능도 취사와 난방기능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주택의 출입은 복도로 하는데 한쪽의 경우는 신을 신고 각실에 들어가는데 반해 조선족은 대체로 복도 입구에서 신을 벗어놓고 들어간다. 난방은 강과 라디에터를 병용하는데 부엌과 붙은 방은 강(구들식), 떨어져 있는 방은 연탄보일러식 라디에터로 난방을 한다. 커팅(G부분)에는 강이 없고 소파나 침대를 두어 사용하고 있다.

그림3은 심양시 위홍구 김○○씨택으로서 복도형의 예이다. 가족은 부부(남편51세), 아들(현재 외지에 나가있음)이 살고 있으며 연면적 85㎡, 벽돌조 기와지붕이며 1980년대 중반에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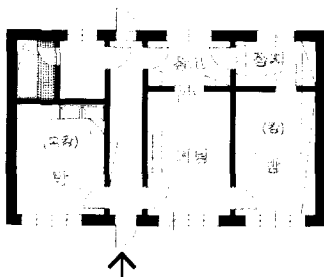


그림 3. 복도형의 예

실의 배치는 남북으로 겹집형태이며 남측에 거

실과 방, 복측에 주방과 욕실이 배치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방과 거실은 크고 주방과 욕실은 좁다. 출입문을 열면 복도로 연결되고 복도 좌측에 띠강방, 우측에 커팅과 방이 있다. 부엌과 인접된 방은 강으로, 커팅은 라디에터로 난방을 한다. 부엌은 부속창고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좁은 편이며 연탄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작은 찬장이 놓여있다. 집안에 들어섰을 때 좁고 긴 복도로 인해 답답하고 약간 어두운 느낌을 준다. 취침은 우측의 안쪽방에서 하나 커팅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사작업은 주로 커팅에서 하며 손님이 오면 접대도 거기서 한다. 복도 왼쪽 띠강은 외지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사용한다. 취사는 부엌에서 전기와 가스레인을 사용하며 방으로 통한 문을 통해 음식을 나르고 식사는 주로 안쪽 방을 이용한다. 세면, 샤워, 세탁등은 위생실에서 하며 용변은 옥외변소를 사용한다.

3. 거실중심형의 특징

이 형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일종의 LDK형이다. 실내가 온수바닥난방으로서 현관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며 대부분의 생활은 바닥에 앉아서 한다. 이는 앞서 두 유형과는 크게 다른데 조사과정에서 거주자들이 <한국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주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조사과정에서 한족들도 이러한 주택을 지은 것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주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현재 한 집도 없으며 그들은 신을 잘 벗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림4는 이 형의 예로서 심양시 위홍구 박○○씨택으로 노모와 부부가 산다. 연면적76㎡, 벽돌조, 기와지붕이며 1994년에 지었다.

남편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신축한 것으로 평면구성이 한국의 것과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남측의 방과 거실에 비해 북측의 방, 화장실, 부엌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점 등은 매우 특이한데 이것은 이러한 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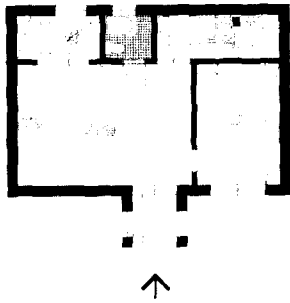


그림 4. 거실중심형의 예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데서 오는 미비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단란, 식사, 접객, 가사작업등 대부분의 생활은 거실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노인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거실이 넓고 바닥이 따뜻하여 아주 만족하다고 한다. 부부는 거실 우측의 큰 방에서 자고 노모는 북측의 작은 방에서 기거한다. 취사는 가스와 전기를 이용하고 식사는 주방 한쪽의 식탁에서 할 때도 있으나 대개는 거실에서 한다.

이상에서 3개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지중심형에서는 정지가, 거실중심형에서는 거실이 공간의 중심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가 된다. 이에 비해 복도형은 기능이 개실로 분할되는 비중이 크다.

둘째, 정지중심형이나 복도형은 한족들의 주택과 유사한데 반해 거실중심형은 조선족들이 크게 선호하는 형이다.

셋째, 공간구성의 형태가 과거 정지중심형에서 복도형, 거실중심형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공간구성의 변화와 전망

본 항에서는 앞서 3개 유형의 형성배경과 변화과정 및 그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5>공간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3개형 중 도시주택으로

표 5. 공간구성의 변화

	정지중심형	복도형	거실중심형	변화의 요인 (연료, 난방방식, 주생활, 제도변화 등)
1960년대	P1, P2, P3, P7, P9, P19*			· 연료: 농업부산물(볏짚, 옥수수대), 장작, 석탄
1970년대	P4, P5, P6, P8			· 난방: 구들식(강) · 농업이 주된 직업
1980년대	P10, P11	P12, P13, P14, P15, P16, P17, P18		· 연료: 석탄, 장작 · 전기·개스사용시작 · 난방: 구들+라디에터. · 상·하수도 정비
1990년대		P20, P21, P22, P23	P24, P25, P26	· 연료: 전기, 개스위주 · 난방: 구들+라디에터, 온수바닥난방. · 한·중수교로 한국 도시주택의 영향.

*P19는 1960년대 건축된 것을 1990년대에 개축한 것임.

서 가장 초기의 것은 정지중심형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의 주택에서는 이러한 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형은 현재 동북3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한족들의 주거평면과 거의 동일하며 현재 조선족, 한족 구분없이 농촌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여기서 두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70년대까지는 도시외곽의 주택과 농촌주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조선족들이 한족들의 주택형을 그대로 도입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족의 경우, 방바닥에 비닐장판을 깔아 신을 벗고 생활하는 점 등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공간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지는 볏짚, 옥수수대 등 농업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이 커야 했으며 양

측방을 난방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 복도형은 1980년대부터 조선족, 한족주거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연료 및 난방방식의 변화로 정지가 중앙에 크게 배치되어야 했던 것에서 평면구성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때부터 칸은 부엌과 인접한 방 하나 정도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라디에터로 난방을 하게 되었고 커팅이 일반화되게 된 것이다. 또한 욕실이 실내에 들어옴으로 인해 세탁, 세면기능이 부엌에서 분리되므로 해서 부엌은 취사와 식사, 난방의 고유한 기능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평면형은 거의 모두 겹집공간구성을 갖게되는데 이는 결국 정지의 기능을 축소하고 욕실, 커팅등을 추가하면서 칸에 난방까지 하려면 겹집형태가 유리했을 것이며 이들 각 실을 연결하기 위해서 복도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형은 조선족, 한족 구별없이 나타나고 있다.

거실중심형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데 이는 온수바닥난방의 보급, 한국과의 교류등이 주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내 전체를 온수 바닥난방 함으로서 조선족이 선호하는 좌식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복도형에 비해 실내가 넓고 밝기 때문에 조사결과 조선족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이 형의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족주거와는 전연 다른 조선족의 주거공간으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대적으로는 정지중심형에서 복도형, 거실중심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연료, 난방방식의 변화와 아울러 조선족의 좌식생활 추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도시 주택·주택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요녕성 도시지역 단독주택들의 공간구성형태 및 유형을 분류하고 그 각

각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여기서 연구의 주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녕성 도시단독주택의 공간구성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지중심형, 복도형, 거실중심형이 그것이다. 여기서 정지중심형은 정지가 주택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제반 생활의 중심이 되는 형이고, 복도형은 각 실의 연결을 중앙복도에서 하는 형이며, 거실중심형은 LDK형과 유사하게 거실이 공간구성이나 생활의 중심이 되는 형이다.

둘째, 공간구성형태가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왔는데 대체로 1970년대까지는 정지중심형이 대부분이었고 1980년대에는 복도형, 1990년대에는 거실중심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취사연료, 난방방식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즉, 종래의 한족식 구들인 칸 중심의 난방에서 온수보일러에 의한 라디에터, 온수 바닥난방이 보급되면서 평면구성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선족의 좌식생활 추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도시주택의 초창기 형태인 정지중심형이나 복도형은 공간구성상에는 한족들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그래도 칸방에 비닐장판을 깔아 신을 벗고 들어가 생활한다거나 띠칸등을 개발한 것은 좌식생활을 추구하는 한 단면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구가 1990년대에 들어와 온수바닥난방 방식과 거실중심형의 공간구성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되었고 거주자들의 선호도로 보아 앞으로 이 형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요녕성 도시지역 단독주택 공간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중국의 다른 지역, 특히 연변지역과는 전연 다르며 흑룡강성 주거와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주거의 연구는 각 지역의 지역성이 반드시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그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 1)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중국사회의 변화과정도 크게 상응한다. 즉, · 1950-60년대: 대약진 및 경제조정기(1950년대 후반부터 1966년 문화혁명전까지) · 1970년대: 문화혁명기(1966-1976년) · 1980년대: 개혁·개방기(1978년 이후) · 1990년대: 한·중 수교(1992년) 및 교류.

참 고 문 헌

1. 김광익,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의 현황과 역할, 연길 : 중국연구, 제1권 4호, 1993.
2. 김영모(편),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3. 김종영 외 3인,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1호, 1998.
4. 민족출판사 출판위원회, 봉화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3), 북경: 민족출판사, 1989.
5. 박경휘, 조선족민속연구, 심양 : 료녕민속출판사, 1987.
6. 박경휘, 조선족 주택개량의 제문제, 조선족민속연구, 제1권, 연길, 1991.
7. 심혜숙, 중국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길 : 연변대학출판사, 1993.
8.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84.
9.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 장재춘,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10. 이채진, 중국안의 조선족, 서울 :청계연구소, 1988.
11. 조선족역사족적편집위원회, 풍랑(중국 조선민족발자취총서7), 중국 : 민족출판사, 1993
12. 중국조선족청년학회,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92.
13. 한동수, 그림으로 보는 중국전통민가, 서울 : 발언, 1994.
14.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